고대 불교문화 궁금해요!

인각사, 6월 20일 부터 1년동안 '삼국유사 특별전시회' 개최

6월 20일 인각사 경내에서 열린 '삼국유사 특별전' 개관식.

삼국유사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실 내부.

신라시대 창건된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인각사가 지난 6월 20일부터 1년동안 '삼국유사(三國遺事)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 무인정권의 혼란, 몽고와의 전쟁, 몽고를 대리해서 치러야 했던 일본 정벌 등 고난의 시대 13세기를 살다 간 승려 일연이 지은 역사서이다.

인각사는 제7회 삼국유사 문화제의 일환으로 삼국유사 기획전시관을 개관하고 앞으로 1년간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연 스님이 고려 충렬왕 10년(서기 1284년) 인각사를 중창하고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 탄생부터 입적까지 스님의 연보, 관련자료들이 전시된다. 또 삼국유사의 영어본을 비롯한 외국어 번역본 10여종과 영인본도 전시회에 나온다.

이번 전시는 순전히 '상상'을 기반으로 한 '유물 없는' 전시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알려진 것 처럼 <삼국유사>에 관한 현존 유물은 따로 없다. 전시는 700여전에 씌어진 <삼국유사>가 어떻게 이처럼 오랜 세월 의미 있는 역사책으로 남아있는지, 한 권의 책이 100년간 한국전반에 걸쳐 집중 조명을 받아왔는지 등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전시장 입구에는 <삼국유사>의 유래 및 일연 선사의 소개를 해놓았다. 단군신화 이야기와 주몽신화, 알의 나라, 처용의 나라, 원효이야기, 진평왕의 세 딸, 김유신 이야기, 설화의 세계 등 9가지의 주제로 총 43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한번씩 접해본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구성돼 가족단위 관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장 한 켠에는 삼국유사 영인본 및 각국 언어로 변역 된 삼국유사가 함께 진열되어 삼국유사가 얼마나 멀리 전파되었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전시회를 주최한 상인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중요 기록들과 찬란했던 고대 불교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삼국유사>가 오랜 세월 어떤 의미로 존재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오는 8월 삼국유사 문화제를 앞두고 민족의 얼과 우리 문화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자 특별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전시관 개관식은 6월 20일 오후 2시 인각사 경내에서 초청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선 가구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선조들이 직접 사용했던 필통.

조선시대 가구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국불교미술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은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북촌에서 만나는 조선가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조선시대 가구 및 전통 공예품을 소개하고 기존의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의 종교예술 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실용품의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조선시대 반닫이, 장, 찬탁, 함 등의 비교적 부피가 큰 목가구와 붓걸이, 고비, 필통 등의 작은 전통 공예품을 포함 총 30여점의 실용작품이 선보인다. 조선시대 선조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전시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766-6000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⑬

전체가 하나될 때 진정한 통합

찬불가 편찬 후원금 지원 오해 등으로 통합 실패
두 법인 합치는 것은 불교음악 발전 초석 다지는 일

2000년대 초반

협회가 둘로 나눠지면서 불교인들은 "협회가 하나가 돼도 불교음악의 발전이 될까 말까 하는데 둘로 나눠져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며 걱정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여러차례 통합작업이 이루어졌다. 1차 통합 과정은 2001년에 (사)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는 정부기 교수와 황학현 씨가 대표로 (사)불교음악협회에서는 반영규 김회경 씨가 협의에 나섰다. 통합과정이 이루어지던 어느날 정부기 교수가 협회 사무실로 찾아와 "사무국장으로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기에 사기꾼소리를 듣고 다니느냐"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 인해 사)불교음악협회측 반영규 씨가 "이런 사람과는 통합을 할 수 없다"고 해 1차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은 2001년 12월15일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1천만원을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신한은행 계좌로 찬불가 편찬에 도움을 준 것이 원인이었다. 개인적으로 스님께 지원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퍼뜨려 불교음악인들의 염원인 법인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일로 인해서 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내사를 받았고 내사가 끝난 뒤 혐의가 없음을 담당 경찰에게 직접 만나서 통보 받았다. 반영규 씨와 덕신스님이 조계종 호법부에 진정해 호법부에서 경찰청에 의뢰해서 내사가 있게 된 것이다.

2차 통합과정은 2003년 1월 4일 황학현씨가 (사)삼보불교음악협회에 운영위원장을 사직하고 (사)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삼보불교에서는 조영근 이사가 불교음악협회에서는 황학현 김회경 씨가 통합을 추진했다. 실무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다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통합을 추진하던 중 불교음악협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부설로 편입돼 통합할 수 없다고 알려와 2차 통합과정도 무산되고 말았다.

3차 통합과정은 불기2005년 6월29일 (사)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황학현씨의 제안으로 (사)삼보불교음악협에서는 조영근 이사를 대표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다음날인 6월 30일 반영규씨의 통합 보류 의견으로 황학현 씨가 알려와 3차 통합과정이 무산이 됐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4차 통합과정은 전국의 불교음악인들이 두 협회에 강력히 통합을 요구하고 이 요구 사항을 이 협회의 이사들이 모여 통합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체가 하나되어야 만이 통합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길만이 불교음악계를 활성화 하고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신명나는 리듬 '더위야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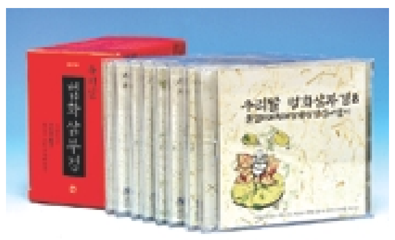
'야단법석' 타악 퍼포먼스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연출 최성신)'이 서울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타악그룹 야단법석이 2002년과 2003년 선보였던 공연을 재보완해 다시 무대에 올리는 것. '야단법석'은 산사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이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화해와 사랑의 깨달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타악 공연으로 풀어낸 무언극이다. 스님들의 엉뚱한 표정과 몸짓이 신명난 리듬과 함께 어우러져 흥을 돋워준다. 공연에는 운판, 법고, 목어, 범종 등 불교 타악기가 사용된다. 국악경연대회 수상자들로 구성된 배우들은 모두 삭발을 하고 등장한다. 3만원. (02)929-2183.

김주일 기자

<우리말 법화삼부경> 출시



<우리말 법화삼부경(法華三部經)>이 음반으로 출시됐다. 前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스님이 점자교육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의 경전 공부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성우 이의선 씨의 목소리로 녹음됐다.

이번 소리경전음반은 일반오디오CD 16장, MP3파일CD 2장 등 두 종류이며, 경전의 주요 내용을 담은 특별보급용 CD 1장짜리도 함께 제작했다. <법화삼부경>은 불경 중에서 계통이 같은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경>을 묶은 것이다.

이 음반은 시각장애인이 일반 오디오 CD와 MP3파일CD 가운데 각기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메일(300055@hanmail.net)이나 전화(010-2273-2331)로 신청하면 무상으로 보급한다. 일반인은 전화주문(02-927-2848)이나 음반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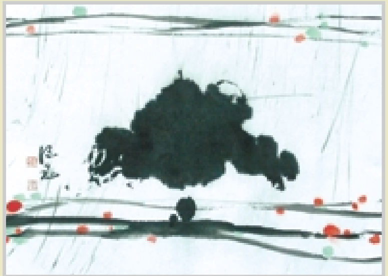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⑯

팔공산 운부암

장인성 시인

스님도 없는 빈 집
늙은 지붕에 풀꽃 피는데
부처님 홀로 법당에 앉아
그윽한 고요속에 향촉을 밝히시네.



운부암(雲浮庵)–은해사에 속한 암자로 성철과 향곡 스님의 젊은 시절 수행처
그림 : 이상배 화백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목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